

榮山江流域 百濟時代 墓制의 變遷 背景

林 永 珍*

目 次

- | | |
|--------------------|--------------------------|
| I. 머리 말 | 1. 榮山江流域 石室墳의 構造·出土遺物·年代 |
| II. 榮山江流域의 土着墓制 | 2. 榮山江流域 石室墳의 受容背景 |
| III. 石室墳의 受容과 그 背景 | |
| | IV. 맺 음 말 |

I. 머리 말

百濟 初期 榮山江流域에서는 서울·公州 등 百濟 中心地域의 대표적 묘제인 積石塚이나 石室墳과는 전혀 다른 묘제라고 할 수 있는 大形甕棺墓가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영산강유역에서는 百濟와는 별개의 獨自의인 政治體가 형성되어 왔고, 그 구체적인 실체는 馬韓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아울러 영산강유역에서도 대형옹관묘에 이어 석실분이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지역의 독자적인 土着社會가 百濟의 支配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옹관묘로 대표되는 영산강유역 토착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이나 백제로 통합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異見이 남아 있다. 먼저 그 성격에 대해서는 馬韓 諸小國의 支配層, 특히 金銅冠이 출토되는 고분은 馬韓 盟主國인 目支國의 首長墓로 보는 견해¹⁾, 다양한 墳丘 형태와 葬法, 馬具·銅鏡·三足土器의 不在 등으로 미루어 馬韓 小國의 支配層으로 보는 견해²⁾, 漢江 流域의 馬韓 支配層에 의해 축조되었던 可樂洞式 墓制가 南遷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라는 견해³⁾, 伯濟國이 百濟로 성장하면서 馬韓 諸小國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남았던 小國의 支配層으로 보는 견해⁴⁾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3세기 후엽 이후 약 100년 동안에 해당한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보는 견해로부터 6세기를 하한으로 하는 비교적 늦은 시기로 보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4~5세기를 중심 연대로 파악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全南大學校 人類學科 助教授

- 1) 崔夢龍,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9, 1986. p. 12.
- 2) 成洛俊, 「榮山江流域의 甕棺墓 研究」, 『百濟文化』 15, 1983. p. 80.
- 3) 安春培, 「韓國의 甕棺墓에 관한 研究」, 부산여대논문집 18, 1985.
- 4) 徐聲勳·成洛俊, 『羅州藩南古墳群』, 국립광주박물관, 1988. p. 193.

이와같이 榮山江流域의 土着社會가 百濟로 編入되는 問題는 고고학자료 이외에도 백제의 성장이라는 대세론적인 측면과 문헌자료로 볼 때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時期에 대해 見解의 差異가 있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過程과 背景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백제와 병행하는 시기에 영산강유역의 묘제가 어떻게 변천해가는가를 정리하고, 그와같은 묘제의 변천 배경, 특히 甕棺墓와 石室墳과의 關係에서 추정되는 榮山江流域의 土着社會가 百濟로 統合되는 過程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榮山江流域의 土着墓制

百濟 初期 榮山江流域의 土着墓制로는 甕棺墓와 土塋墓를 들 수 있다. 그 중 甕棺묘는 3~5 세기에 大形甕棺墓로 발전하는데, 金銅冠을 비롯한 중요한 유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甕棺묘와 함께 사용되었던 토광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土塋墓는 甕棺墓와 함께 初期鐵器時代에 대동강유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우리나라 전지역에 확산되었던 묘제로서⁵⁾ 백제의 중심지인 서울이나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積石塚, 石室墳 등 백제 지배 세력의 무덤과는 뚜렷이 구분되면서 공존하고 있다⁶⁾.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는 토광묘와 甕棺묘가 동일한 묘역이나 같은 봉토 안에 공존하면서 서로 비슷한 규모이거나 토광묘의 규모가 더 큰데 반해, 영산강유역에서는 羅州 馬山里⁷⁾, 靈岩 內洞里⁸⁾·萬樹里⁹⁾, 務安 社倉里¹⁰⁾, 和順 龍江里¹¹⁾ 등을 제외하고는 대형 甕棺묘 위주로 조사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²⁾.

그러나 토광묘와 甕棺묘는 백제 이전의 토착 사회에서 함께 사용되었던 묘제이고 甕棺묘 보다는 토광묘가 더 많이 조사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甕棺묘가 압도적으로 많이 조사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영산강유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광묘와 甕棺묘가 비슷하게 사용되었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대형 甕棺묘가 성행함으로써 토광묘에 대한 관심보다는 쉽게 눈에 띄이는 대형 甕棺묘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5) 金元龍, 『韓國 考古學 概說(3판)』, 1986, p. 117.

6) 土塋墓·甕棺墓 등 土塋墓系 墓制와 積石塚·石室墳 등 積石塚系 墓制의 系統 問題에 대해서는 拙稿「石村洞一帶 積石塚系와 土塋墓系 墓制의 性格」(『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1987)과 「全南地域 土塋墓에 대한 考察」(『全南文化財』 2집, 1989) 참조.

7) 崔夢龍, 『大草·潭陽 水沒地域 遺蹟發掘調査報告』, 1976.

8) 金元龍, 「靈岩 內洞里 甕棺墓」, 『鬱陵島』, 국립중앙박물관, 1963.

徐聲勳·成洛俊, 『영암 내동리 초분골 고분』, 국립광주박물관 1986.

9) 徐聲勳·成洛俊, 「靈岩 萬樹里 古墳群」, 국립광주박물관, 1984.

국립광주박물관, 『靈岩 萬樹里 4號墳』, 1990.

10) 徐聲勳·成洛俊, 「務安 社倉里 甕棺墓」, 『영암 萬樹里 古墳群』, 국립광주박물관, 1984.

11) 1989년 和順 雲住寺 발굴시 확인된 바 있음.

12)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甕棺묘에 대해서는 成洛俊의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百濟文化』 15, 백제문화연구소, 1983) 참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광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발굴된 靈岩 萬樹里 4호분은 옹관묘와 토광묘가 공존하면서도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성격의 고분이 계속 발굴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토광묘와 옹관묘는 백제 이전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 유역의 비옥한 농경지를 낀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고 이들 지역은 서로 동일한 묘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계 이주민의 서울 진출과 백제의 발전, 이후 공주·부여로의 남하와 함께 그 지역의 토광묘·옹관묘 등 순수한 토착민의 묘제는 적석총·석실분 등 새로운 지배계층의 대형 묘제 속에서 그 명맥만을 이어 나오는데 그친 반면, 영산강유역에서는 토착묘제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榮山江流域에서는 土壙墓와 甕棺墓로 대표되는 土着墓制 중에서도 왜 甕棺墓만이 大形化되었는가 하는 점이 疑問으로 제기된다. 즉 이 두가지 토착묘제 중에서도 성인을 위한 주묘제는 토광묘이고 옹관묘는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¹³⁾, 영산강유역에서는 오히려 어린이용으로 사용되었던 옹관묘가 대형으로 발전하면서 지배계층의 성인묘제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영산강유역은 일찍부터 토기 제작에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지역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손쉽게 棺用의 甕을 구할 수가 있어서 특히 소아의 매장용으로 일상 토기들이 사용되다가 점차 성인용의 관으로 변하면서 대형의 전용관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¹⁴⁾.

이처럼 榮山江流域에서만 土着墓制가 大型化되는 현상은, 서울·충청지역에서는 새로운 이주민에 의한 百濟 建國과 發展으로 말미암아 土着勢力의 힘이 상대적으로 萎縮된데 반해, 영산강유역에서는 백제의 영향권 밖에서 토착 세력에 의한 독자적인 정치체가 성장하면서 권력의 규모에 걸맞는 토착묘제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북지역의 옹관묘들이 영산강유역의 옹관묘들과는 달리 대형화되지 못한 원인을 백제 지배세력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¹⁵⁾는 영산강유역의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반증 자료가 될 것이다.

III. 石室墳의 受容과 그 背景

1. 榮山江流域 石室墳의 構造·出土遺物·年代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석실분은 수십기에 달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발굴조사를 거쳐 학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10여기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정형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수이지만 지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을

13) 金元龍, 『新昌里 甕棺墓地』, 서울대학교박물관, 1964, p. 54.

14) 金元龍, 「靈岩郡 內洞里 甕棺墓」, 『鬱陵島』, 1963, pp. 107~110.

15) 尹德香, 「甕棺墓 數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p. 190.

포함시켜 몇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石室墳 現況表 參照).

1) 立地

구릉 말단부나 야산의 능선 사면 등 소규모 구릉 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석실분은 구릉 경사면을 L자 형태로 파서 地下 혹은 半地下에 석실을 만든 다음 봉토를 덮었다. 그러나 長城 鈴泉里, 海南 月松里 造山, 靈岩 水山里 조감 등의 예와 같이 地上에 석실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다. 鈴泉里나 月松里의 경우 영산강유역에서는 가장 이른 단계의 것으로 인정되는 예이기 때문에 바로 앞 단계에 해당하는 甕棺墓의 地上 立地라는 점과 關係되는 것으로 보이며, 水山里의 경우 가장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甕棺墓와 동일한 封土 안에 共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옹관묘와 교체되는 단계인 이른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석실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2) 長軸方向

거의 대부분이 남북을 장축으로 하고 있지만 海南 月松里와 靈岩 鳳巢里 진동의 경우 동서 장축을 취하고 있어서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고분의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이 주류를 이루다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中國 漢 墓制의 영향으로 남북방향의 북침으로 바뀌는 경향이 보이지만¹⁶⁾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에서는 동서 장축이 주류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실분의 사용에 따라 남북 장축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月松里와 鳳巢里 석실에서 동서 장축을 보여주고 있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데 鳳巢里의 경우 확실한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지만 月松里의 경우 옹관묘와 교체되는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동서 방향을 주축으로 하는 甕棺墓의 傳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月松里 석실분의 지상 입지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으로 보인다.

3) 石室

평면 형태는 長城 鈴泉里·潭陽 濟月里·羅州 松堤里의 3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방형을 띠고 있어서 석실분 중 가장 빠른 단계의 석실분이 거의 대부분 방형을 띠고 있는 점과 비교되는 한편, 鈴泉里·濟月里·松堤里 세 고분의 시기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松堤里의 경우 지표 조사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천정 형태가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穹窿式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석실 바닥은 거의 대부분 잔자갈이나 할석을 깔고 있고, 잘 가공된 판석을 깔 예는 羅州 興德里·大安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두 고분 모두 6세기 말 이후의 늦은 시기이다. 특히 大安里의 경우 1매로 구성된 바닥돌이 棺臺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 중심지의 석실분에서 흔히 바닥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은 興德里의 예를 제외하고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석실 벽면은 천정과 결부되어 석실분의 시기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長城 鈴泉里·羅州 松堤里의 예는 작은 할석들을 벽돌 쌓듯이 쌓아 올렸고, 羅州 大安里·咸平 石溪

16) 金元龍, 『韓國의 古墳』, 1974, p. 43.

90-3호의 경우 판석만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고분들은 비교적 큰 할석 또는 작은 판석을 맨 아래에 세우고 그 위로는 점차 작은 할석을 쌓아가고 있다. 따라서 천정과 결부된 전체 구조에 있어 ‘궁륭식→맞조림식→고임식→사벽수직식’이라고 하는 백제 석실분의 커다란 변천 과정에서 볼 때¹⁷⁾ 각 석실분의 편년식 위치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형식의 병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 석실분의 상대 순서를 구조만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출토 유물과 연관시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석실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백제시대의 것이라고만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통일 신라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인 고려시대에 속하는 석실분이 조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出入施設

모든 석실분은 추가장이 가능한 출입시설을 갖춘점이 특징이라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橫口式과 橫穴式으로 구분되며¹⁸⁾ 영산강유역 석실분 중에서 횡구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실분들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조사되었거나 발굴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양자간의 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시설의 변화에 따른 시기·계통 문제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출입구의 위치에 있어서는 모두 석실 바닥과 수평으로 이어지지만 석실 앞벽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羅州 大安里), 中央·偏右·偏左의 것이 섞여 있되 偏右 출입구가 가장 많다.

5) 枕向과 合葬 問題

침향 문제는 석실의 방향과 직결되는 고분 자체의 장축 방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앞의 〈장축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海南 月松里와 靈岩 鳳巢里 진등의 두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북 장축을 취하면서 咸平 石溪 90-4호분·潭陽 濟月里 고분에서와 같이 유물의 출토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침향은 모두 북침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북 장축의 경우도 북침으로 보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서 방향의 예들은 웅관묘와 크지 않은 시차 때문에 웅관묘의 주된 침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합장 문제는 석실분의 고유 기능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지만 합장임이 확인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羅州 興德里의 경우 두 피장자의 석실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석실분 중 합장의 증거가 제시된 예는 몇기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석실분이 갖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완전히 도굴되어버린 예가 많고 그나마 일부 유물이 남더라도 합장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란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합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咸平 月溪里 石溪 90-4호분과 91-6호분으로서 90-4호분의 경우 관고리의 출토 상태 뿐만 아니라 초축

17) 安承周·全榮來, 「百濟石室墳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10·11, 1981, pp. 109~136.

18) 이 문제에 대해서는 曹永鉉의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 研究』(충남대석사학위논문, 1990)에서 잘 정리해 두고 있다.

당시의 부장품과 추가장 때의 부장품이 배치 상태를 달리하면서 명백한 시기 차이를 보여 주고 있고, 91-6호분은 5구의 인골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합장의 예로서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6) 出土遺物과 年代

대부분의 석실분은 이미 파괴·도굴되어버린 상태에서 긴급구제발굴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출토 유물이 대단히 빈약하다. 그러나 海南 月松里 造山 고분의 경우 196점에 달하는 부장품을 가지고 있고, 咸平 月溪里 石溪 90-4호분의 경우에도 관고리 7점·관못 23점·구슬 4점을 비롯하여 17점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각 석실분은 원래 상당양의 부장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물들은 기본적으로 석실분의 구조 문제와 결부되어 각 석실분의 연대를 밝혀 줄 수 있고, 유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도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피장자의 신분이나 성격을 암시해 주며, 전체적인 유물의 조합상을 통해서 문화적 계통·피장자의 출자 문제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被葬者의 身分이나 性格 문제에 있어서는, 翁觀묘인 羅州 潘南面 新村里 9호분 乙棺¹⁹⁾에서 출토된 金銅冠이나, 영산강유역의 석실분은 아니지만 인접되어 있는 益山 笠占里 1호분²⁰⁾에서 출토된 金銅冠과 같이 獨自的인 政治體의 首長級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유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海南 月松里 造山 고분이나 潭陽 濟月里 고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馬具·銅鏡 등은 단위지방의 수장급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물조합상에 있어서는 삼족토기와 같은 백제계 유물은 비백제계 유물과 한두점 섞여 있는 경우조차 없고 거의 모든 유물들, 특히 有孔廣口小壺·蓋杯·구슬 등은 앞단계 고분인 翁觀묘 출토품과 상통하고 있어서 석실분 피장자의 出自가 어떠한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출토유물과 유구의 분석을 통해 인식되고 있는 영산강유역 석실분의 연대를 살펴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예는 海南 月松里 造山 고분·潭陽 濟月里 고분·長城 鈴泉里 고분으로서 5세기 말~6세기초로 편년되고, 咸平 月溪里 石溪 고분들은 6세기초~6세기 중반대로 편년되며, 羅州 興德里 雙室墳은 6세기후반, 羅州 大安里 5호분은 6세기말~7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다른 고분들은 출토 유물이 거의 없으므로 구조만으로 편년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부적인 편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일단 영산강유역의 석실분은 5세기 말~6세기 초를 기점으로 하여 축조되기 시작한다는 전체 아래 석실분의 수용 과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榮山江流域 石室墳의 受容 背景

영산강유역의 석실분은 5세기 말~6세기 초에 축조되기 시작하였고, 얼마 동안 翁觀묘와 병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6세기 초에는 翁觀묘가 석실분으로 교체되어

19) 谷井濟一에 의해 1917·18년에 조사된 것인데 徐聲勳·成洛俊의 『나주반남고분군』(국립광주박물관, 1988)에 종합·정리되어 있다.

20) 조유전·최명식·윤근일, 『익산입점리고분』, 1989.

새로운 묘제인 석실분이 백제 말기까지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 이후로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웅관묘의 석실분으로의 교체가 백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시기는 5세기 말~6세기 초에 해당할 것이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4세기에 해당하는 近肖古王의 南征에 따라 백제에 편입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연대 문제는 앞으로 숨어있는 자료가 조사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문점이면서 모든 해석의 대전제가 되는 의문, 과연 甕棺墓의 石室墳으로의 交替가 百濟로의 編入을 意味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땅히 그 妥當性을 검토해 보고 다음 단계의 논의로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즉 웅관묘 축조인들은 백제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석실분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묘제 자체는 다르지만 백제가 적석총 대신 석실분을 채택한 경우와 신라가 積石木槨墳 대신 석실분을 채택한 경우는 이러한 自發的인 受容의 예로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묘제는 모든 문화 요소 중에서도 가장 보수성이 강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계통을 달리하는 두 묘제가 아무런 이유없이 교체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百濟의 경우는 文化的 系統를 같이하는 묘제로서, 신라의 경우는 계통이 다르지만 내부적인 커다란 社會 變化 속에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산강 유역 웅관묘의 경우 문제의 석실분과는 문화적인 계통을 달리하기 때문에 백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며 신라의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에서의 묘제 교체에는 520년의 律令 頒布, 527년의 佛敎 公認이라는 사회 변화가 그 바탕이 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古墳規模의 대폭 縮小’, ‘薄葬’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화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반면²¹⁾, 영산강유역 웅관묘와 석실분의 관계는 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토 유물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라에서와 같이 사회내부 요인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산강유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웅관묘에서 석실분으로의 교체는 동일한 문화 계통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교체도 아니고, 사회 내부 요인에 의한 교체도 아닌 것이며,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문제는, 묘제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문화요소를 변화시킬 정도라면 결국 웅관묘 사회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석실분 사회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료와 연구 성과에 의하는 한 영산강 유역의 웅관묘가 석실분으로 교체되었음은 웅관묘 사회가 백제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5세기 말~6세기 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세기 말~6세기 초에 석실분에 묻히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 지역이 百濟에 編入됨에 따라 百濟의 中央에서 派遣된 官吏들인가? 아니면 甕棺墓를 썼던 土着 支配 勢力인가? 이 문제는 웅관묘 사회의 백제로의 통합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21) 이상 신라의 석실분 수용 과정에 대해서는 崔秉鉉의 『新羅古墳研究』(일지사, 1992) 참조.

만약 前者의 경우라면 百濟의 武力에 의한 一方的인 制壓과 그 後續 措處로서의 官吏 派遣을 의미할 것이며, 後者의 경우라면 보다 平和的인 과정을 통한 併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土着 勢力에게 그 權威과 既得權을 認定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翁官묘 사회가 百濟에 통합되는 시기 문제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이며, 보다 충분한 자료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後者의 可能性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영산강 유역의 翁官묘는 그 하한이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도 翁官묘에 이은 새로운 묘제로서는 석실분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인데, 석실분 사용자가 중앙에서 파견된 새로운 관리들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의 翁官묘를 쓰던 토착 세력들은 百濟로의 통합과 함께 무력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 하였거나, 翁官묘·석실분이 아닌 제3의 묘제를 썼을 것인데 지금까지의 자료로써는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석실분을 쓴 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새로운 지배자들이라면 중앙의 석실분 전통을 고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의 초기 석실분 중에는 오히려 翁官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진 것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피장자의 침향과 관련된 석실의 장축 방향으로서 일반적으로 석실분은 북침이 기본이기 때문에 남북 장축을 취하고 있는데, 翁官묘에서 흔히 보이는 동서 장축을 가진 석실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海南 月松里 造山 고분의 석실과 靈岩 鳳巢里 진동의 석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더구나 靈岩 水山里 조감 고분은 석실과 翁官이 동일 봉토 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석실분을 전혀 새로운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째, 출토 유물에 있어 翁官묘 출토품과 석실분 출토품은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미미한 차이 이외에는 문화적 계통 차이에 의한 유물 자체나 유물조합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석실분을 썼던 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라면 토착 사회를 제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무기류와 같은 상징적인 유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5세기 말~6세기 초부터 영산강유역에서 석실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百濟 중앙에서 파견 나온 새로운 관리들이라기 보다는 대형 甕棺墓를 쓰던 既存의 土着勢力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묘제의 변화와 같은 커다란 文化變動은 흔히 政治 變化에 隋伴된다는 점에서도 翁官묘 사회가 석실분 사회로 통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翁官묘 축조 세력이 그 권위를 그대로 표방할 수 있는 석실분을 축조했다고 함은 새로운 체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권위와 기득권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토착 세력이 百濟 세력에 통합되는 과정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平和的인 提携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맺음말

기원전 3세기 경부터 大同江流域에서 시작되어 남부지역 전역으로 보급된 土壙墓는 청동기 시대의 묘제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철기시대의 문을 열게 한다. 그러나 백제 초기 서울지역에서는 지배계층의 묘제로서 積石塚이 사용되다가 백제의 公州로의 南遷을 前後한 시기부터 石室墳이 사용되는데 이 두가지 묘제는 고구려 계통의 묘제로서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의 이 주민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백제의 건국 이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公州·扶餘지역, 그리고 榮山江流域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土壙墓와 甕棺墓를 주 묘제로 삼고 있던 土着 集團은 고구려계 이주민의 남하와 백제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서울지역부터 백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시작해서 百濟의 成長과 함께 公州·扶餘 등지의 土着 勢力 또한 百濟에 統合되었다.

榮山江流域의 土着 勢力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백제와 병행해서 독립된 정치체를 형성하여 오다가 백제의 近肖古王代에 이르러 백제에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영산강유역에서만 토착 세력의 고유 묘제인 옹관묘가 백제 석실분에 필적하는 대형 고분으로 발전하여 상당 기간 존속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석실분으로 바뀐다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입증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榮山江流域의 土着 社會가 百濟에 統合되는 時期와 그 過程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로 판단하는 한 그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복속이 아니라 제휴와 같은 평화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有光教一, 「羅州潘南面の發掘調査」,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40.
- 23) 崔夢龍, 「羅州 大安里 5號 百濟石室墳發掘調査報告」, 나주군청, 1978.
- 24) 李榮文, 「長城 鈴泉里 橫穴式石室墳」, 전남대박물관, 1990.
- 25) 林永珍, 「咸平 月溪里 石溪石室墳 I」, 전남대박물관, 1993.
- 26) 林永珍·鄭基鎭·趙鎭善, 「咸平 月溪里 石溪石室墳 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3.
- 27) 金元龍, 「潭陽出土의 三國時代銅鏡二面」, 『李相白博士回甲紀念論叢』, 1964.
崔夢龍, 「潭陽齊月里 百濟古墳과 그 出土遺物」, 『문화재』10, 1976.
- 28) 徐聲勳·成洛俊,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 국립광주박물관, 1984.
- 29) 서성훈·성낙준,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조사자료」, 『영암내동리초분굴고분』, 국립광주박물관, 1986.

